



삼성전자, 보급형 신제품으로 ‘폴더블 대중화’ 승부수

플립7 FE·A17 5G·탭 S10 라이트
美 FCC 인증 완료… 현지 9일 언팩

폴더블폰 성장세 둔화 대응전략
가격장벽 낮추며 기기 라인업 확대
신흥시장·교육용태블릿 동시 공략

삼성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그리고 첫 저가형 폴더블폰의 미국 출시 승인을 받으며 하반기 ‘대중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가 정책으로 성장이 둔화한 폴더블폰 시장에 보급형 라인업을 확대해 점유율을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7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 Z 플립7 FE (모델명 SM-F761U), ▲갤럭시 A17 5 G(SM-A176B), ▲갤럭시 탭 S10 라이

트(SM-X400) 등 3종의 신제품이 모두 FCC 인증을 통과했다.

FCC 승인은 미국 시장 출시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 절차로, 인증 후 통상 1~3개월 내 출시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먼저 인증을 마친 제품은 갤럭시 Z 플립7 FE(플립7 FE)다. 6월 중순 인증을 획득한 플립7 FE는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이는 보급형 폴더블폰으로, 기존 Z 플립6(256GB 기준 148만 5000원)보다 가격이 대폭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립7 FE는 기존 플립폰과 동일한 조개껍데기(클램셸) 모양을 유지하되, 내부 6.7인치 화면과 외부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전망이다. 대신 비용 절감을 위해 화면 주사율을 60Hz로 낮추고, 배터리는 3900mAh, 카메라는 1200만 화소 듀얼 구성으로 단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5일 FCC 인증을 받은 갤럭시 A17 5G는 2025년형 보급형 5G 스마트폰으로, 인도·동남아·남미 등 신흥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 25W 고속충전(9V/2.77A), 듀얼 SIM, NFC, Wi-Fi 5 등 기본적인 연결 기능을 갖추고 가성비에 중점을 뒀다.

갤럭시 탭 S10 라이트는 7월 3일 인증을 마쳤다. 삼성의 중급 태블릿 라인업인 탭 S 시리즈의 엔트리급 모델로, 이번에 와이파이 전용 모델(SM-X400)이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셀룰러(LTE/5G) 모델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45W 고속충전, Wi-Fi 6E, 마이크로SD 슬롯, 전면·후면 카메라, S펜, 키보드 연결용 포고핀 등을 갖춘 교육·생산성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는 폴더블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65% 급감

7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광고대가 비어있다.부동산 전문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577건으로 규제 직전 일주일간(6월 20~26일) 거래량이 1629건이던 것에 비해 64.6%(105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백악관 “관세 유예 연장 가능 협상 진척국엔 시간 더 줄 것”

진전 없는 15개국 경고 서한 예정

미국이 관세부과의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백악관 내부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제시한 90일간의 유예는 이달 8일(미동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한국시간으로는 9일 오후 1시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어쩌면 기한을 넘길 수 있는데,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판단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시 위원장은 또 “시한이 있고, 거의 (합의에) 가까워진 사안들이 있다”며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국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같은 날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ABC뉴스에 출연해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선의로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양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미런 위원장은 “(상대국에 대한) 양보에 있어 진척이 있는 나라는 시한이 연

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실질적 양보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어떤 국가들이 유예 연장의 대상일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 내로 무역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나라들에 경고성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 15개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뉴저지주에서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가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간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 왔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트럼프는 또 “우리는 협상을 해 왔다. 따라서 서한 (발송)을 비롯해 몇 가지 협상의 조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7월9일이나 8월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미국)가 대부분의 나라와 7월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한 아니면 협상”이라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와 동행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갤럭시Z플립7 FE 렌더링.

/노트북테크, 새미그루 등 해외 IT매체

작년 사업 부진에 100만명 ‘폐업 쓰나미’

폐업자 수 역대 최고 기록
소매업·음식업 45% 달해

지난해 국내 폐업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이중 절반이 사업 부진을 폐업의 사유로 들었다.

7월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합쳐 폐업한 사업자 수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98만6487명)과 비교해 2만1795명 늘었다. 폐업자 수가 100만 선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1995년 관련 통

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폐업자 수는 2020년 89만5379명, 2021년 88만5173명, 2022년 86만7292명 등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2년째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는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은 사업자가 50만6198명으로 50.2%에 달했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비율이 50%를 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래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

인 비율이 높은 소매업(30만639명)과 음식업(15만3017명)에서 대규모의 폐업자가 나왔다. 두 업종에서 발생한 폐업만 전체의 45%에 달한다.

또 서비스업에서 22만4490명의 폐업자가 생겨났고 건설업에서도 4만9584명이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을 했던 사업자 중 폐업한 비율을 뜻하는 폐업률도 9.04%로 전년(9.02%)대비 소폭 늘었다. 특히 소매업(16.78%)과 음식점업(15.82%)의 폐업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4일 개최 /사진 뉴시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부·울·경 광역철도, ‘농공약’ 균형발전 상징” /사진 뉴시스

▲이준석 “국힘 혁신위 좌초는 만성적 문제… 계엄 단절할 마지막 기회”

▲장성민, 국힘 전당대회 출마기로… “나라와 당 살려야 한다는 생각”

▲부승찬 “윤석열, 불법 전투 개시 혐의… 해당 형벌은 사형”

▲이 대통령, 방미 특사에 김종인 전 민주·국힘 비대위원장 내정